

玉所 權變의 鶴警衣에 관한 研究
-『玉所稿』소재 학창의 관계자료를 대상으로-

이 민 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A Study on Okso, Keun Seob's *Hakchangeui*(鶴警衣)
-Examining Data about *Hakchangeui* Written in 『*Oksoko*(玉所稿)』-

Min-Joo Lee[†]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2004. 11. 12. 접수: 2005. 3. 19. 채택)

Abstract

Okso, Keun Seob(1671~1759) was descended from a noble family of *Noreum*(老論) and learned from his uncle, Keun Sang-ha who is a disciple of Song Si-yeol, Kim Chang-hyeub and Kim Chang-heub. His 『*Oksoko*』 remains in the form of a transcription or a lithographic printing, and documents on '*Hakchangeui*' are recorded in *jabeui*(雜儀), *Euijedogi*(衣制圖記), which is a part of it. He left Seoul in 1714, settled in Chungpung, journeyed to many places, including the Hwang river area and Jecheon and led a literary and artistic life as *Sadaebu*(士大夫), which was written in a collection of his works where the record about '*Hakchangeui*', the most suitable clothes for the life of a retired scholar remains today to express one part of his life. This study introduces data about *Hakchangeui* written in 『*Oksoko*』, pursues the reason why Okso, Keun Seob told about it and intends to embody the figure of *Hakchangeui* based on the system, measure, material, and sewing method according to the records in a collection. *Hakchangeui* described in 『*Oksoko*』 reveals a structure that is different from old *Hakchangeui*, showing characteristics like the following. It is a *Sadaebu*'s costume for field amusement in which the length of a former part is longer than that of a later part and the side seam of a garment rips. Black *Yeon* is attached to the white texture. *Yeon* widths of *Git*(collar), *Sugu* and *Gil* are varied, respectively. *Yeon*'s figure attached to *Gil* and *Somaejindong* is a mountain. *Git* is *Bangryeong* and link parts between *Git* and *Gil* is connected with *Sangchim*. This *Hakchangeui* is considered to play as a gown because it has no string or support to adjust his dress. Especially we can identify that *Hwayanggun*(華陽巾) was used in this *Hakchangeui*.

Key words: *Hakchangeui*(학창의), *Hwayanggun*(화양건), *Keun Seob*(권섭), *Oksoko*(옥소고).

I. 緒 論

한국복식에 관한 연구대상 자료나 텍스트는 유물 및 회화, 史料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대부들의 문집은 거의 제외되었다. 물론 예서들에는 예학자들의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BL1071).

[†] 교신저자 E-mail : mjlee815@hanmail.net

예론과 함께 심의의 의미 및 구성방법까지 기록하고 있어 조선시대 당시 예론의 전개와 함께 심의의 사회적 의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¹⁾. 그러나 예서를 제외하고 나면 복식에 관한 기록은 제야 학자들의 저술인 野史나 雜著에서 복식용어의 해설이나 服色·思想, 당시의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바느질이란 여성들의 일상으로 순전히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그저 그 만드는 법을 대대로 전수했을 뿐, 기록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대부분의 저자가 사대부 남성들로 이루어진 문집에서, 복식에 관한 그림이나 자료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특히 옷의 치수와 그에 따른 제도, 바느질 법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있던 문집 중 옥소 권섭의 필사본인 『옥소고』에 실린 ‘학창의’ 기록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학창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동시에 학창의에 대한 단독 논문조차 없는 실정에서 학창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²⁾.

玉所 權變(1671~1759)이 살았던 현종~영조 연間は 조선 후기 문예의 중흥기라 일컫는 시기였으며 예송논쟁과 탕평의 정국에 부침을 겪는 시기인 한편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자각과 주체 의식이 고양된

시기였다. 이런 역동하는 조선 후기를 살면서 그가 남긴 방대한 문학작품과 시·서·화(詩書畵) 등은 이미 국문학계에서는 18세기를 읽을 수 있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³⁾.

이처럼 다양한 삶에 대한 그의 관심은 당대의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그 중 학창의에 대한 기록 역시 그의 삶의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권섭은 노론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나 송시열의 제자인 伯父 한수재(寒水齋) 권상화와 농암 김창협, 삼연 김창흠 등에게서 수학하였다가 일찍이 과거에 뜻을 버리고 문예에 집착하여 치사적인 삶을 택한 지식인이었다.

학창의는 옛날부터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덕망 높은 도사나 학자가 입었던 옷이다. 치사적인 삶을 향유한 권섭에게는 늘 착용하는 가장 어울리는 옷이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애정이 작별했던 관계로, 그의 문집에 학창의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조선시대 지식인 옥소 권섭의 학창의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동시에 옥소 권섭이 ‘학창의’를 문집에 기록한 원인을 추적해 보고, 문집 속의 학창의의 제도와 척도, 素材, 색상, 바느질 방법 등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관심 밖의

1) 정혜경, *심의* (경남: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1996).

2) 『옥소고』에 학창의의 제도 및 척도가 있음을 알려주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최호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 지금까지 나온 권섭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요순, *옥소권섭의 시가연구* (서울: 탐구당, 1990).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장경수, “〈영삼별곡〉 연구,” *이문논집* 32 (1993).

정홍모, “옥소 권섭의 시조 재론,” *내전 논총* 1 (1993).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동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집 (1996).

박길남, “권섭 시조의 주제 의식 고,” *한남 어문학* 21 (1996).

윤성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 국문학* 35 (1998).

김문기, “옥소 권섭의 구곡가계 시가연구,” *정봉 최태호박사 회갑기념 논총* (서울: 동 논총 간행위원회, 2000).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2001).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관악어문연구* 27 (2002).

장경수, “〈황강구곡가〉의 창작배경과 그 성격 연구,” *한국서조학회*.

권섭, *옥소 권섭의 문체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이창희 역* (서울: 다운샘, 2003).

이상원, “〈도동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배경과 그 의미,”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이상원 (서울: 보고사, 2004).

대상이었던 양반 사대부의 문집에 실린 복식을 통하여 당시 사대부의 아복인 동시에 도학자적 기질과 위상을 표현하고 있는 옥소 권섭의 ‘학창의’를 총체적으로 구현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玉所 權變

1. 權變의 일생

권섭은 조선 후기의 분인으로 1671년 3월 1일 의조모인 貞敬夫人 鄭氏의 母親인 貞敬夫人 洪氏(洪翼漢의 딸) 방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 자는 조원, 호는 옥소(玉所)·백취옹·부명옹·천남거사이다. 그의 조부는 강릉부사 등 內外職을 거쳐 장령을 역임한 權裕(1620~1671)이며, 그의 백부는 송시열의 수제자로 당대의 巨儒인 權尙夏(1641~1721)이다. 그의 부친인 權상명(1652~1684)은 옥소가 14세 때에 세상을 떠나 현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숙부인 權상유(1656~1724)는 호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아우인 權堃(1678~1745) 또한 대사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그의 외조부인 李世白(1635~1691)은 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삼촌인 李宜顯(1669~1745)은 예조판서·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⁴⁾. 이와 같이 혁혁한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옥소시기에 그의 장래가 어떠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옥소의 친가와 외가는 당대의 노론 명문가였고 그의 처가는 소론의 명문가였으므로 과거에 낙방하였다 하더라도 벼슬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⁵⁾. 그러나 옥소는 송시열을 위시한 김수항과 김수홍 등 內外家間에 遠近姻戚들이 사사 또는 유배의 참극을 겪은 뒤 관계(官界) 진출의 길보다는 문필 쪽을 택하고 1714년 서울을 떠나 청풍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황강, 체천 등 일생

을 전국 방방곡곡 명승지를 찾아 탐승여행을 하며 보고 겪은 바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2. 權變의 도학자적 기질

권섭이 스스로 道學者임을 자처한 바는 없지만 그의 주변적인 여건으로 보면 도학적 음영이 짙게 드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외적 요건으로는 권섭이 생활했던 현종대(1671년 출생)로부터 영조대(1759년 별세)까지의 기간은, 유교사상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래 어느 기간보다도 농후하게 영향을 미쳤던 기간이었다는 사실과 둘째, 내적으로는 송시열의 학통을 이어받은 수제자 권상하가 바로 권섭의 백부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권섭의 나이 78세인 1748년에 지은 <도통가>는 송시열과 권상하의 도학자적 위치를 높이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도통’은 ‘유학의 참정신이 전해 내려온 큰 흐름’을 뜻하는 말로, 이미 세상을 떠난 조선의 도학이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이에 권상하의 조카인 권섭 또한 도학의 뜻을 잇고 있음을 암시한다.

권섭의 유고 중에는 자신을 밝힌 대목들에서 그가 도학자와 같은 외모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신장은 6尺이 넘고 체구는 파리하도록 여윈 편이며, 귀는 길쭉하고 광대뼈가 드러나고 이마는 넓고 눈썹은 성긴 편이며, 피부빛은 누르고 붉으며 소리는 깊고 맑았다. 코끝은 뾰족하며, 입술은 두텁고, 큰 눈에 눈동자는 빛났고 얼굴은 좁고 턱이 바르며, 머리는 목욕한 것처럼 윤이 나고 땅에 닿았다. 수염은 아름다웠으나 길이가 가슴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리는 학다리 같아서 잘 걷고 어깨는 잔나비 같아서 웅크리려면 민첩하지 못했다.

4) 옥소의 일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조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성신문화연구원, 1989).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2001).

5) 옥소는 18번이나 과거에 응시하지만 급제하지 못하였다.

6)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배경과 그 의미,” *조선시대 서가사의 구도와 서각* (서울: 보고사, 2004), pp. 261-262.

7) 『옥소집』, 卷八, 述懷詩序

居士伸張六尺有餘, 具體瘦骨弱而小肉, 修耳露頰, 顴額踈眉, 膚赤以黃聲清以深, 鼻陵而唇厚, 目大而瞳炯, 其面小, 其頤狹, 其髮如沐, 而委於地其髻, 美髯而不及於胸長, 腳如鶴, 故易於矩步, 纖臂以猿矣, 艱於捷擡



〈그림 1〉 옥소 권섭의 54세 영정.

실제 〈그림 1〉과 같이 화양건에 학창의를 착용하고 있는 그의 영정을 보아도 가냘픈 편인 체구와 섬세한 용모는 나래를 접고 차분히 내려앉은 한 바리의 학과 같다. 또한 학처럼 脫俗한 경지에서 자연과 술을 벗하여 풍류의 생활을 즐기며,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自述墓銘〉에서 ‘性直’·‘氣清’·‘心休’라 지적한 대로 권섭은 물질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영예보다 정신적인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에 전념하며 매사에 초연했던 도학자이었음에 틀림없다.

3.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옥소의 문집은 석인본(石印本)인 『옥소집(玉所集)』과 필사본(筆寫本)인 『옥소고(玉所稿)』가 전한다⁸⁾. 이 중 석인본은 1936년 8월에 13권 7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필사본은 문경박물관에서 위탁 관리중

인 화지본(花枝本) 12책과 제천의 영수암본(永遂菴本) 40책이 전한다. 그 외에 〈황강구곡가〉를 비롯하여 구곡가계(九曲歌系) 관련 글들을 묶은 〈옥소장계(玉所藏齋)〉 1책이 있다. 옥소 문집을 비롯한 옥소관련 자료들은 지금까지 그 존재만 확인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실체는 밝혀진 바 없다. 필사본과 석인본의 차이, 화지본과 영수암본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았으며 문집에 수록된 글의 구체적 목록이 제시된 적도 없다.

그러나 그가 80여년을 사는 동안 3,000여 수에 가까운 한시와 가사 2편, 사조 75수와 한역소설〈번설경진(翻薛卿傳)〉등 문학작품과 경제 정선과의 교류에 대한 기록 및 50편이 넘는 검재 풍의 회화작품, 그리고 묘지의 풍수를 기록한 산도(山圖)를 비롯하여 예복(禮服), 학창의(鶴氅衣)등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전부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가 제대로 정리 소개된다면 18세기의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학창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적도가 전무한 실정에서 옥소 권섭의 학창의는 조선시대 학창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Ⅲ. 史書 및 遺物 속의 학창의

1. 鶴氅衣의 기록

‘학창의’에 대한 기록은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왕우칭의 황주죽루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황주죽루기에 보면, 공사(公事)가 끝나 퇴창한 뒤의 여가에는 학창의(鶴氅衣)를 입고 도사들이 쓰는 화양건을 쓰고서 손에는 주역 한 권을 들고 향을 태우며 조용히 앉아 있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

8) 필사본은 일명 永遂菴本으로 詩一(같은 책 2권), 詩二, 詩三, 詩五, 詩八, 詩九(같은 책 2권), 詩十, 詩十一, 詩十三, 文一, 文二(같은 책 2권), 文四, 文五, 遊行錄二(같은 책 2권), 遊行錄三, 雜錄一, 雜著, 雜著一, 雜著二, 雜著四, 雜著六, 雜儀一(같은 책 2권), 推命紙, 筆札一, 筆札二, 問答二, 問答四, 朋游唱酬二, 朋游唱酬別二, 朋游唱酬三, 朋游唱酬四, 朋游唱酬別四, 散錄外篇二, 亭閣一, 墓山一, 墓山二, 墓山三, 私集二, 私集三, 私稿五 등으로 옥소가 같은 책을 두권씩 필사한 것을 제외하면 40권 40책이 현재 전하며 각인본은 옥소 사후 179년 후인 1938년 12대손인 權熙萬에 의해 13권 7책으로 발행되었다.

9) 왕우칭, 『古文眞寶』, 권 6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

...公退之暇, 披鶴氅衣, 戴華陽巾, 手執周易, 卷, 焚香默坐, 消遣世慮.

이 글은 왕우칭이 죄를 지고 호북성의 황주로 유배되어 그 곳 태수로 있을 때에 황주의 名産인 큰 대나무를 베어다가 기와 대신 그것으로 지붕을 덮은 樓를 만든 후 쓴 것이다. 竹樓 주변의 사계절의 즐거움을 각각 죽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서의 雅趣와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묘사하면서 세상일에 超然한 맑고 깨끗한 風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있으며, 『東國通鑑』에는 전(前) 원외랑(員外郎) 관여가 烏巾과 鶴髦衣 차림으로 금중에서 항상 모시며 조용히 담론하고 창화(唱和)하니 당시 사람들이 금분 도객(道客)이라 불렀다¹⁰⁾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학창의'의 용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송사대전의 어록을 보면, 학창의는 야복인데 초야에 있을 때 적합하기에 입는다고 하였으며, 선생은 평소애 반드시 도포나 혹은 심의를 입었고 관은 羊毛·馬尾를 寒·물외 계절에 따라 다르게 하였는데 만년에는 학창의를 많이 입으셨다고 하였다¹¹⁾. 또한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 역시 학창의에 오건을 착용하였으며¹²⁾, 권상하가 쓴 교관 강공 석하의 묘표에서도 "오건과 학창의 차림으로 방에 들어앉아서 옛날 사람들을 벗 삼을 만큼 뜻과 사상이 고고하였고 때로 꽃을 모종하고 체마밭에 붙을 대는가 하면 휘파람 불고 시를 읊조리는 등 스스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다."¹³⁾고 한 것으로 당시 儒者들의 야복이었음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朝鮮王朝實錄』에는 한가롭게 지낼 때이면 반드시 와룡관을 쓰고 학창의를 입는데 학창의는 사마광의 심의를 모방한 것이었다¹⁴⁾고 하였다.

또한 『海行摠載』에는 일본에 간 사신이 와룡관에 학창의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梅泉野錄』에는 임헌

회(任憲晦)가 학창의를 입고 온양을 지나가는데 동자들은 모두 총각으로 사규산을 입고 따라갔다¹⁵⁾고 하였다. 이처럼 학창의는 조선 중기 이후 야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鶴髦衣의 製樣

송시열의 학창의는 수박처럼 푸른빛인데 옷깃은 둥글고 소매는 크며 뒤는 갈라지고 도련은 검은데 도련의 넓이는 3-4寸에다가 옷자락은 안팎이 없이 전면에 합금되었으므로 좌우의 옷깃에 암·수의 끈 몇 개가 있고, 입으면 허리띠가 없으므로 이끈바 띠를 풀기가 편리하다¹⁶⁾고 한 것으로 송시열의 학창의는 청색의 길에 흑연을 두르고 대가 없이 끈으로 연결된 야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권상하의 학창의는 포의 제도와 같으면서 매우 큰 것과 오늘날의 폐자와 같은 작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¹⁷⁾.

빙허각 이씨는 현재 학창의의 만들새는 방령이 마주 대하여 양 깃이 서로 덮이지 않고 흑단을 누르고 있다고 하였다¹⁸⁾.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학창의는 목둘레에서부터 앞단, 도련, 소매 끝에 5-6cm 정도의 검정색 선을 둘러쌌다. 뒷고대 20cm 아래에서부터 등숭기를 뜨고 양옆도 20cm 정도 뒀다¹⁹⁾.

10) 『東國通鑑』, 고려 예종, 계사년, 봄 2월.

11) 『宋子大全』附錄 卷十八 語錄

先生平居, 必着道袍或深衣, 而冠則羊毛馬尾, 隨寒暑而異也. 晚年多鶴髦衣曰, 此野服也, 宜於在野, 故服之也.

12) 권상하, 국역 한수재집 1권,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숲, 1997), p. 325.

13) 권상하, 국역 한수재집 4권, 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숲, 1997), p. 314.

14) 『정조실록』, 13년 10월 7일 (기미), (서울: 서울시스탬주식회사, 2001).

15) 김영숙, 한국복식사 사전 (서울: 민문고, 1988), pp. 520-521.

16) 『宋子大全』附錄 卷十八 語錄

先生平居, 必着道袍或深衣, 而冠則羊毛馬尾, 隨寒暑而異也. 晚年多鶴髦衣曰, 此野服也, 宜於在野, 故服之也. 鶴髦衣, 青如西瓜色, 圍其領而大其袖, 折其後而黑其緣, 緣廣二四寸, 不爲內外衽, 而合襟於前, 故左右襟, 有數箇北壯之紐矣, 着之而無腰帶, 正所謂解帶爲使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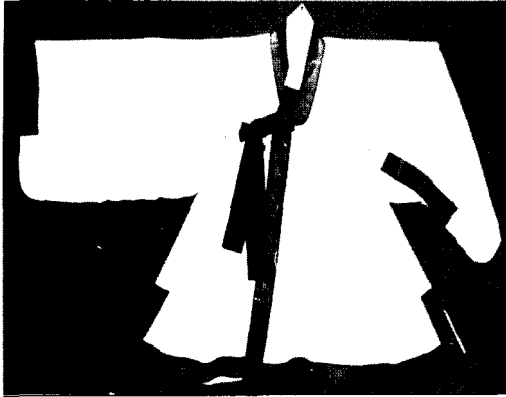
17) 권상하, 국역 한수재집 1권,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숲, 1997), p. 325.

"학창의는 큰깃과 작은 것 두 제도가 있는데 큰 것은 포와 같으면서 매우 크며 작은 것은 오늘날의 폐자와 같은 것이네. 선생께서 입으셨던 것은 포의 제도와 같은 것으로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나 오래된 일이라서 확실히 기억할 수 없네. 나도 한 번을 만들어 놓고는 싶지만 가난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니 한탄스럽네. 일찍이 감곡상공(감곡은 김육의 호)과 성천이監리직을 보니 다 크게 만든 것을 입으셨네. 현재도 중국에서 구입할 길이 있는지 모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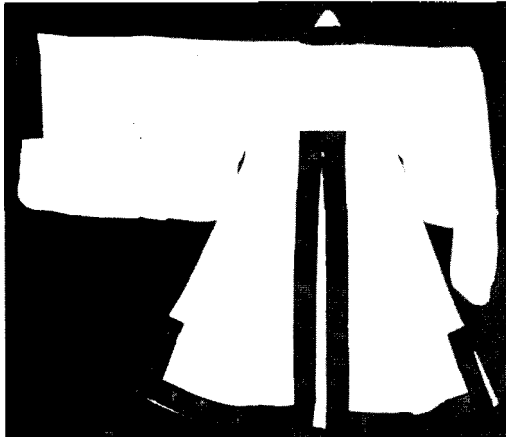
18) 빙허각 이씨, 규합총서, 정양완 역 (서울: 보진재, 1980), p. 129.

학창의 금속 제양은 방령이 마주 대하여 양 깃이 서로 덮히지 아니하고 흑단이 심의와 깃부터 터개 고금 의복 제도가 너도호니, 고인의 소착 학창의 제도는 이와 깃타를 띠지 못호리하다.

19)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6), pp. 269-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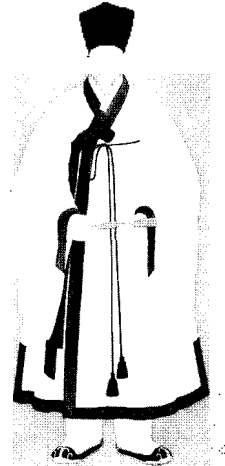
<그림 2> 학창의 앞면.



<그림 3> 학창의 뒷면.



<그림 4> 학창의 - 박선영 작.



<그림 5> 방건과 학창의를 착용한 모습 - 조선시대 우리 옷.

그 외에 <그림 4>와 같이 깃 앞단, 도련, 수구에 5~6cm 정도의 검정색 선을 두르고, 뒷고대의 30cm 아래에서부터 등줄기를 트고 무 도련선 양쪽 옆도 25cm 정도의 검정색 선을 두른 학창의도 있다²⁰⁾.

이처럼 학창의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남자편복 포 중 하나로 옛날부터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사대무의 연거복으로 넉넉 높은 도사나 학자가 입었다. 그 모양은 환 창의를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 겹으로 넓게 꾸미고 있어 마치 심의와 같았으나 데에 있어 세조대나 광대로 여며 묶는 것이 다르다^{21,22)}.

또한 학창의는 儒者 심의에서와 같이 흔히 두건을 병용하였는데 정자관, 동파관, 와룡관, 방건 등도 착용하였다^{23,24)}.

또한 송시열의 학창의와 같이 정색의 학창의도 있다. 『高宗實錄』에는 김장생이 말하기를, '옛날 先君을 따라서 京師에 가 국가간 유생들이 입은 儒服을 보니 남색 비단으로衣를 만들고 청흑색 緣을 달았는데 그 연이 소매 끝까지 달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權衫의 유재로 세속에서 鶴氅衣라고 하

20) 박선영, 전통한부구성학 (서울 : 수학사, 2001), pp. 146-147.

21)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 경춘사, 1998), p. 196.

22) 안명숙, 김용서, 한국복식사 (서울 : 예학사, 1998), p. 110.

23)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p. 373.

24) 권오창, 조선시대 우리옷 (서울 : 현암사, 1998), pp. 74-75.



〈그림 6〉 홍선대원군의 학창의.

는 것이 이것이다. 학창의의 길은 청색으로 하면 조복이나 제복의 중단과 같다²⁵⁾. 〈그림 6〉은 홍선대원군이 학창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림 7〉은 고종이 착용하였던 청색 학창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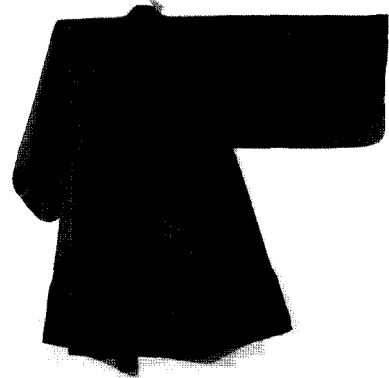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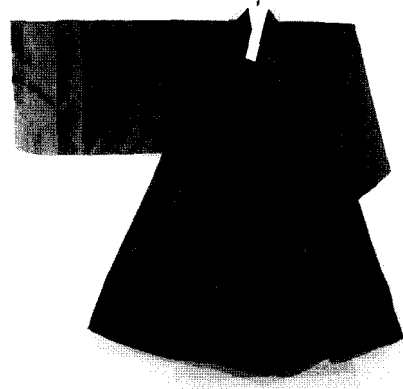
이상에서와 같이 학창의는 심의와 형태가 비슷하나 색상에 있어서는 청색도 있다. 관모는 복건, 방건, 정자관, 와룡관, 동파관 등 편복에 착용하는 관모를 쓰고 있다. 제도에 있어서는 심의는 의와 상을 따로 제단하여 연결한 상하 연속의이나 학창의는 흰 장의에 가장자리에 검은 형걸로 넓게 선을 누르고 있으며, 깃도 직령과 방령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초기의 학창의는 야복으로 네가 없었으나 후기 유품에는 고름을 맨 후 세조대나 광대로 여며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玉所稿』속의 鶴氅衣

1. 鶴氅衣의 由來와 意味

옥소 권섭의 『옥소고』에 실린 학창의에 대한 유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학창의는 도가의 복이다. 그 제도가 오래 되어서 언급하지 못하다. 소매는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또



〈그림 7〉 고종의 학창의 앞, 뒷면.

소매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바당은 청색, 백색, 황색, 흑색으로 되어 있고 연의 넓이도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다. 연의 색도 흑색과 청색이 있어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옷의 길이는 직선으로 아래로 잘려져 있으며 앞길이가 길고 뒷길이가 짧다. 또 대를 묶지 않는 것이 불변이다. 황주죽무기에 학창의를 입고 회양건을 쓰는 것은 회양건이 반드시 학창의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옷에 그 건이라는 것은 고증된 바 없다. 중국의 오래된 제도가 송원고지에 전해져 취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 제도는 복건을 써도 관모와 더불어 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25)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 일조각, 1986), p. 308.

26) 권섭, 『옥소고』, 雜儀, 衣制圖記.

“鶴氅衣是道家之服其制古而不嚴重袖夾袖有袖無袖青質白質黃質縹質綠質廣緣狹緣黑緣青不定其規獨其衣身之直削而下前長而後短又不束帶者不變耳黃州竹樓記曰身着鶴氅衣頭戴華陽巾則是知華陽巾必屬於鶴氅衣耳其衣其中無所考證中國舊制流傳於中原故地故取倣而製之巾則或着幅巾冠帽與等而不拘無妨耶”

2. 鶴髻衣의 尺度

『玉所稿』에 기록되어 있는 학창의 척도는 다음과 같다.

- 衣의 앞길이는 2자 4치이고 넓이는 5치 2푼이다.
- 衣의 뒷길이는 2자 3치이고 뒷폭은 합해서 1자 4푼이다.
- 소매 길이는 1자 2치로 소매의 넓이는 폭을 나한다.
- 깃의 길이는 8치 4푼이고 緣의 넓이는 1치 4푼이며, 方領은 1치 4푼이다.
- 동정의 길이는 5치 5푼이고 넓이는 4푼이다.
- 깃 아래 方緣의 넓이는 2치이고 길이는 1치 4푼이다.
- 衣에 있는 緣의 넓이는 2치 2푼이며 緣이 바깥에 있다.
- 袖口는 4치 5푼으로 그 아래가 5푼 간격으로 3치 2푼이 흰색으로 봉제되어 있고 또 5푼 간격으로 3치 5푼이 흰색으로 봉제되어 있다.
- 衣 끝에 있는 연의 좌우 모서리를 모두 흰색으로 봉제한다.
- 깃 아래 방연 좌우를 모두 흰색으로 교차되게 봉제한다.
- 자는 포백척을 사용한다.
- 衣에는 23자가 소요되고 緣에는 10자 5치가 소요된다.
- 衣에는 布나 紬나 氈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 청색, 황색, 검은색으로 하며 緣은 毛段이나 黑緇 혹은 청색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화양건의 척도는 그림으로 상세하게 보여준다.

먼저 의복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의 문제이다. 조선시대 도량형이 문제가 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여러 차례 보인다²⁷⁾. 그러나 가가호호 바느질 방법에 차이가 있고 측척이 똑같지 않아 정확한 치수를 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권섭은 학창의의 척도를 제시

圖尺帛布



〈그림 8〉 포백척도.

하면서 포백척의 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사용한 자의 규모를 포백척 4寸으로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그림 8)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와 비교해 본 결과 4寸의 길이는 19.8cm였으며, 1寸은 4.8cm, 4.9cm, 5cm, 5.1cm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3. 鶴髻衣의 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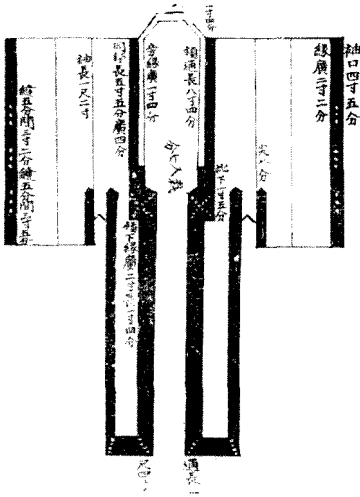
학창의는 의와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창의는 야복인 관계로 대가 없으며 다만 화양건이 있음을 본 제도에서 밝히고 있다.(그림 9, 10)

권섭의 학창의 제도를 살펴보면 색상이나 소재에 있어 구속이 없이 의에는 布나 紬나 氈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 청색, 황색, 검은색으로 하며 緣은 毛段이나 黑緇 혹은 청색으로, 구속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지어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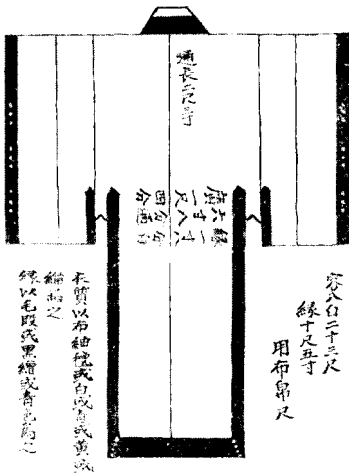
구성상에 있어서는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1치가 더 길며, 소매와 방령부분, 앞길과 뒷길의 밑단 모서리 부분에 상침이 놓여 있다.

緣에 있어서는 길의 선단 밑단 부분과 수구부분에 연이 있으며 특히 소매의 진동부분에도 앞뒤에

27) 『세종실록』, 13/04/07(신축), “각 고을이 저운·밭[斗]·되[升]는 각각 그 장관(長官)이 바르게 교정하여 나누었으나, 포백척(布帛尺)의 제도는 일찍이 바르게 교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경외(京外)의 척도(尺度)가 한결같지 못하여 서로 길고 짧으니, 창건대 각 고을로 하여금 죽척(竹尺)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여, 경시서(京市署)로 하여금 그 사(市)의 표준 척도(尺度)에 준하여 바로잡아 환송하게 하소서.”



<그림 9> 학창의의 앞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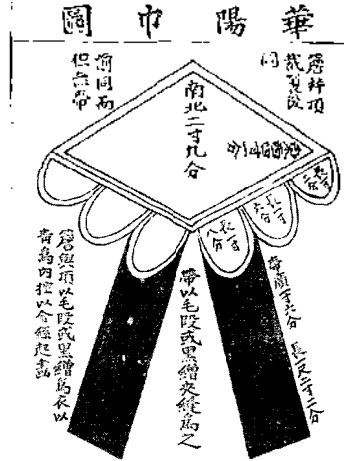


<그림 10> 학창의의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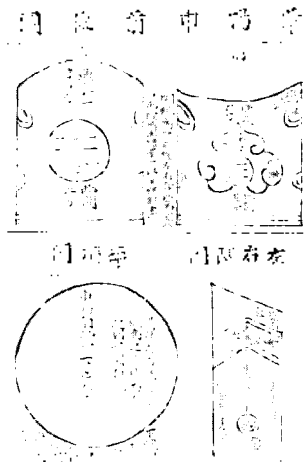
연이 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기존의 의복구성에서 볼 수 없었던 봉제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 본 학창의에는 대나 고름의 자리가 없으며 여밈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입고 빗기가 편리한 말 그대로 야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깃은 본래의 깃 길이가 아래 방향의 형태로 깃이 연이 있으며 깃 위에 동정아 달려 있다.

건은 화양건을 착용하였으며 건의 제도는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다.



<그림 11> 화양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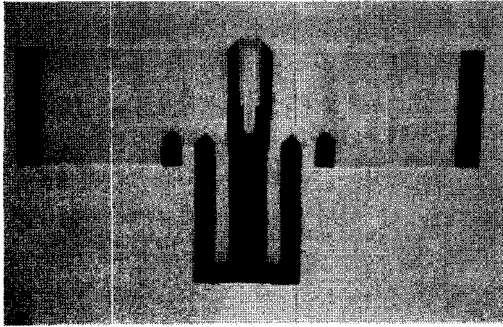


<그림 12> 화양건 전후도.

4. 鶴縵衣의 製作

본 학창의를 제작하는 데 있어 소재는 衣와 緣 모두 명주를 사용하였다. 자는 『土所稿』에 실려 있는 포백척 4寸의 크기를 기본으로 척도에 따라 환산하여, 먼저 길과 소매를 바름질하고 緣을 마름질하였다.

바느질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술을 호아 고대에서 도련 쪽으로 솔기를 쥐는다. 소매는 두 쪽을 붙여 솔기는 가름술을 하고 수구에 연을 꼰로 하여 붙인 후 감킴질한다. 소매의 진동 밑에 산 모양(8.4)의 연을 소매의 左右前後에 붙인다. 앞길과 뒷길에도 선단과 밑단에 연을 붙인다. 이 때 소매진동에 붙



〈그림 13〉 학창의 고증 복원 작품.

는 연의 산의 높이와 길에 있어 연의 산의 높이를 같이 한다. 깃의 너비는 1寸 4分, 길이는 8寸 4分으로 하고 방령의 길이를 1寸 4分, 넓이를 2寸로 하여 모양을 만든다. 좌우 맞 것이 되도록 고대를 중심으로 깃을 놓은 후 깃 위에서 감침시침을 한 후 안쪽에서 바느질하여 깃을 만든다. 안깃도 겉깃의 모양과 같이 만들어 겉 깃 위에 얹은 후 바느질한다. 길과 소매를 연결하기에 앞서 길의 진동부분을 먼저 앞뒤를 맞추고 통솔로 바느질한다. 길과 소매는 박음질로 바느질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한다. 다음은 본 학창의 가장 독특한 점으로 수구와 깃 아래 방령부분, 의의 끝에 있는 좌우 연의 모서리부분을 취색실로 세 탑 상침한다. 동정의 길이를 5寸5分, 넓이를 2寸으로 하여 동정을 달면 학창의가 완성된다. 〈그림 13〉은 옥소 권섭의 학창의를 고증 복원한 작품이다.

V. 결 론

玉所 權變(1671~1759)은 內外家間을 위시한 妻戚에까지 三相자리에 오른 이가 연이었으며, 조선시대 예학자인 권상하의 조카로 비술을 하지 않은 체 창작 및 탐승여행으로 일생을 보낸 사대부이다. 그는 7세부터 붓을 들어 자기 표현을 하였다. 8세부터 詩作을 하기 시작하여 지극히 평범한 일, 평범한 감동까지 기록하였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회화로까지 표현하였다. 특히 옥소 권섭이 '道通歌'를 짓고 '학창의'를 문집에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와 그의 집안에 흐르는 도학자적 기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학창의를 야복으로 착용하고 도학자적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옥소 권섭의 필사본인

『玉所稿』에 실려 있는 학창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창의는 도가의 복으로 그 제도가 오래되어서 구속하는 바가 없어 소매의 형태에 있어도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또 소매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였으나 『玉所稿』에 실린 학창의는 소매가 전체 길의 1/2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소매를 하고 있다.

둘째, 소재에 있어서는 布, 紬, 氈 등으로 하며, 바탕의 색은 청색, 백색, 황색, 흑색으로 되어 있고 연의 넓이도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다. 연의 색도 흑색과 청색이 있어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玉所稿』에 실린 학창의 역시 깃, 수구, 길에 있어 연의 넓이가 1寸 4分, 2寸 2分, 1寸 8分으로 서로 다르게 대어져 있다. 또한 학창의에 색은 백색이고, 연의 색은 검정색이다.

셋째, 옷의 길이는 직선으로 길의 양옆은 터져 있으며,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길다.

넷째, 학창의는 야복으로 대를 북지 않는 것이 불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玉所稿』에 실린 학창의 역시 대가 없다.

다섯째, 옥소는 그의 문집에서 학창의에는 다양한 견을 착용할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화양건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송 때부터 착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왕우칭의 「황주축부기」에서와 같이 화양건이 학창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관모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古文眞寶後集 (1991). 김학주 역. 서울: 명문당.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서울: 일조각.
 고영진 (1996). 조선선종기 예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권성민 (1992).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상하 (1996). 국역 한수재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권오창 (1998). 조선시대 우리 옷. 서울: 현암사.
 權變. 玉所稿.
 權變. 玉所集.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 사전. 서울: 민문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東國通鑑.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박선영 (2001). *전통한부구성학*. 서울: 수학사.
 박요순 (1990). *옥소권섭의 시가연구*. 서울: 탐구당.
 백영자 (1998).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빙허각 이씨 (1980). *규합총서*. 정양완 역. 서울: 보진재.
 서울시스템주식회사 (2001). CD-ROM 국역조선왕조
 실록.
 송서열 (1988). *국역宋子大畵*.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유희경 (1982).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이상원 (2004).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배경과 그 의미.”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사
 각*. 서울: 보고사.
 정혜경 (1998). *심외*. 경남: 경남대학교 출판부.
 최호식 (2001). “옥소 권섭의 소설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성남: 정신문화연
 구원.